



비목(碑木)

초연(硝煙)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지 벽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樵童) 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이끼 되어 맺혔네

궁노루 산울림 달빛 타고, 달빛 타고 흐르는 밤
홀로 선 적막감에 울어 지친, 울어 지친 비목이여
그 옛날 천진스런 추억은 애달퍼
서러움 앞안이 돌이 되어 쌓였네



홀로 선 적막감에 울어 지친 비목이여

한국인이 사랑하는 3대 가곡 '비목'
비목 아래 무명용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6·25 전쟁이 정전한 지 11년밖에 안 된 1964년 어느 날, 격전지였던 강원도 화천군 백암산에서 수색대 소초장으로 근무하던 젊은 소위는 야간 순찰을 하다 문득 예상에 잡힌다. 팻말 같은 썩은 나무와 녹슨 철모가 놓인 돌무더기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주위엔 하얀 산목련이 달빛을 받아 아련하게 빛나고 있었다. 돌무더기는 이곳에서 전사한 무명용사를 묻은 돌무덤이었다. 초라했지만 정성스레 돌을 쌓아 올린 모습에서 전우애가 느껴졌다. 하얗게 핀 산목련은 마치 무덤 주인을 애도하며 지키는 소복 입은 여인 같았다고 한다. 이름답고도 비감한 풍경을 보며 한창 감수성 넘치던 소위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여기 묻힌 사람은 누구일까? 내 또래였을 텐데... 어떤 꿈을 꾸던 이였을까? 고향은 어디였을까? 아내는 있었을까?'

젊은 장교 눈에 뜬 비목,
명곡 탄생 씨앗이 되다
소위가 당시 느꼈던 먹먹한 감흥은 그로부터 약 5년 뒤에 희대의 명곡으로 승화됐다.

바로 한국인의 3대 애창 가곡으로 불리는 '비목'이다. 그리고 이 젊은 초급 장교는 한명희 전 국립국악원장이다. 한명희가 쓴 시(詩)에 '편곡의 대가'로 불렸던 장일남 전 한양대 음대 교수가 가슴을 저미는 듯한 애잔한 멜로디를 붙여 역사에 길이 남을 노래가 탄생한 것이다. 비목의 현장에서 느낀 생생한 감정을 그대로 실어낸 노래란 사실도 이목을 끌지만, 두 대가가 창작에 호흡을 맞춘 점도 예사롭지 않다. 전역 후 동양방송(TBC)에서 음악부 PD로 일하던 한명희는 우리 가곡에 관심이 아주 많았다. 그래서 그는 가곡 중흥을 위해 전례 없던 가곡 생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 장수 코너로 정착시키기도 했다. 그 시절 그가 만난 인연이 바로 장일남이다. 한명희는 어느 날 장일남에게 창작 가곡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의뢰했다가 가사를 써달라는 역제안을 받는다. 망설이던 한명희의 뇌리에 갑자기 백암산 깊은 계곡에서 봤던 돌무덤과 이끼 낀 나무 비(碑)가 떠올랐다. 그렇게 마스터피스 '비목'은 세상에 나왔다.



1 화천군 주최 비목문화제 위원회에서 먼저 간 집우에게 경례를 올리는 참전용사들. 비목의 고장 화천은 매년 현충일 전후로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비목문화제를 연다.
2 '비목'을 작사한 현명희 전 국립국악원장
3 '비목'을 작곡한 고(故) 장일남 전 현양대 교수

한명희 작사·장일남 작곡이 빛어낸 애절한 감성

비목(碑木)은 말 그대로 나무로 된 묘비다. '목비'가 어법상 맞겠지만, 시적 허용 또는 문학적 표현으로 여긴다.

'초연(硝煙)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지 녀에 /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노래는 이 첫 소절에서부터 한국인의 마음을 빼앗았다. 치열했던 전투가 끝나고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한 옛된 아들이 지나간 시간 쓸쓸한 산중에 묻혀 있어야 했던 비극을 눈앞에서 재현하는 듯해서다. '화약 연기가 쓸고 간 계곡이라니, 피비린내 나는 살육과 생존 투쟁의 이수라장을 이보다 더 문학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고향과 어린 시절 친구(樵童)를 그리워하는 돌무덤 주인의 마음은 비목 마디마디에 이끼가 되어 맺혔다고 노래는 전한다. 또 홀로 남은 '적막감에' 울고 또 울다 지친 끝에 그 서러움이 돌이 되어 쌓였다는 사연을 노래는 들려준다.

6·25 마지막 전투가 남겼는지 모를 수많은 비목

어쩌면 한명희가 마주했던 비목의 주인은 6·25 전쟁의 최후 결전에서 비운에 스러졌을지도 모른다. 그가 전사한 백암산 전투는 3년 1개월간

계속된 전쟁의 마지막 대규모 전투였던 1953년 7월 금성지구 전투의 핵심 고지전이었기 때문이다. 강원도 화천군 백암산은 전략 요충지였던 화천담 사수의 마지막노선으로 여겨졌고 중동부 전선의 관문이기도 했다. 이곳이 뚫리면 휴전선 중부 라인은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국군과 미군을 위시한 유엔 연합군은 휴전을 앞두고 백암산 사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중국과 북한 역시 마찬가지로 밀릴 수 없는 전투였기에 백암산을 포함한 금성 지구에선 필사적 충돌로 피아 모두 많은 사상자가 났다.

그중 한 명이 이 비목의 주인인지 모른다. 막 피어나는 꽃 같은 젊음을 나라의 부름에 바치고 비목 아래 잠든 그는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 그가 흘린 피는 후손들에게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걸까.



민간인과 아군 추가 희생 막아낸 '파로호 전투'

'비목의 고장' 화천, 그리고 인접한 양구는 이 같은 6·25 전적지가 많다. 화천군과 양구군 사이에는 면적 38.9km², 저수량 약 10억에 달하는 거대한 '파로호'가 있다. 금성 전투에서 언급했던 화천댐이 1944년 발전용으로 완공되면서 생긴 인공호수이다. '동북공정' 등을 통해 역사 왜곡을 일삼는 중국이 불편해하는 곳을 통해 역사 왜곡을 일삼는 중국이 불편해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이곳에서 1951년 5월 말 벌어진 화천 전투(별칭 파로호 전투)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치욕의 참패를 당한 탓이다.

당시 '화천 저수지'였던 파로호 주변에서 퇴로가 막힌 중국군은 단 사흘간 전투에서 무려 2만5천 명이 사상한 것으로 추산된다. 수많은 중국인이 흘린 피로

저수지 전체가 붉게 물들었다는 무용담이 전해질 정도다. 그래서 훗날 이 전투는 '살수대첩'에 비유되기도 했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이 전공을 치하하고자 '오랑캐를 대파한 호수'라는 의미로 화천 저수지를 '파로호'(破盧湖)로 명명했다.

1950년 10월 중국의 전격 참전으로 우리 연합군이 압록강·두만강 유역까지 북진하며 낙관했던 통일의 꿈이 눈앞에서 좌절된 기억, 그리고 1·4 후퇴 전후로 개전 초기보다 더 막대한 민간인 피해가 났던 아픔을 기억했다면 '파로'라는 이름이 저절로 떠올랐을지도 모른다. 중국은 그래서 이 호수 이름에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2019년에는 중국이 '파로호' 명칭을 바꾸도록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는 언론 보도들도 있었다.

4 DMZ 철책선을 철통 경계 중인 장병들.
5 동부전선 DMZ 경계 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이 철책을 순찰 중이다.

실제로 여전히 중국은 6·25 참전을 ‘항미원조(抗美援朝: 미국에 대해 조선을 돕다)’로 기술하면서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으로 나아가는 중대 이정표”로 평가한다. 대한민국이 마지막으로 전쟁을 한 나라는 중국이지만, 정작 지금 중국은 이웃에서 일어났던 불행을 자신들이 오랜 침체에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주장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중국의 발호는 미·중 대결 양상이 고조되는 국제 정세에서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 뇌관의 운명을 타고난 한반도에 다시 위기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좌우가 대립했던 ‘평화의 댐’

파로호 상류 쪽으로 가면 볼 수 있는 ‘평화의 댐’도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대변하는 산 역사다. 이 댐은 북한이 북한강 상류에 건설한 대형 댐인 금강산댐을 활용해 수공(水攻)을 벌이거나 천재지변에 의한 금강

산댐 붕괴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지은 방어용이다. 공사 기간과 건설 이후까지도 정치권의 이념 공방이 끊이지 않았던 댐이기도 하다. 그래서 좌우 양쪽 진영 모두 안보 문제를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있다. 한쪽은 북한의 수공 위협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풀려 정국 전환용으로 이용했고, 다른 한쪽은 반대로 지나친 낙관론과 평화주의로 댐 무용론을 확산했다는 게 비교적 중립적인 비판이다. 이 같은 정치 공방 속에 평화의 댐 건설은 중단된 적도 있고, 1988년 마무리된 1단계 공사는 초기 목표 규모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2년에 금강산댐이 붕괴하면 실제로 수도권이 위협해질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면서 정부는 결국 2단계 증축 사업을 통해 저수용량을 4배가량 늘렸다. 지금은 전문가와 학자들이 평화의 댐의 안보 유용성과 홍수 조절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 1 파로호 전경
- 2 파로호 비(碑).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를 새겼다.
- 3 ‘평화의 댐’ 위에서 바라본 파로호 상류



보훈의 달, 아이들과 ‘비목 투어’ 가볼까?

뇌과학자, 진화심리학자, 인류학자 등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원래 과오를 잊게 돼 있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수많은 이들이 흘린 피로 쟁취한 것임을 망각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다만 21세기에도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나라 국민들이 자유와 평화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자유와 평화는 지금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산소처럼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인지부조화에 빠진다면 비극의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 네빌 체임벌린 전 영국 총리는 재임 시절인 1938년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통 등과 유화적 협정을 맺고 나서 “명예로운 평화”를 이룩했다고 자찬했지만, 이는 결국 나치의 발호를 돕고 제2차 세계대전을 촉발

하는 결과를 낳았다. 유럽 현대사에서 체임벌린의 사례는 무능하고 우매한 리더가 공동체 전체의 생존과 평화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결국 체임벌린 퇴장 이후 뤫스스은 초기부터 강경 대응을 주장한 바람에 정치적으로 매장되다시피 했던 윈스턴 처칠이 말아야 했다. 그는 연합군 승리의 주축으로 활약해 많은 유럽인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냈다. 처칠은 당시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승리 없이는 생존도 없다.” 아내와 자식, 부모와 이웃의 ‘생존’을 지키려 ‘승리’하려던, 비목의 주인은 지금도 여전히 ‘적막감에 울어 지친’ 외로운 주검이다. 그 영혼을 위로할 겸,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비목의 고장’ 화천·양구로 가족과 함께 안보 투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 백암산과 파로호의 비경, 산천어의 진미는 덤이다. ▼